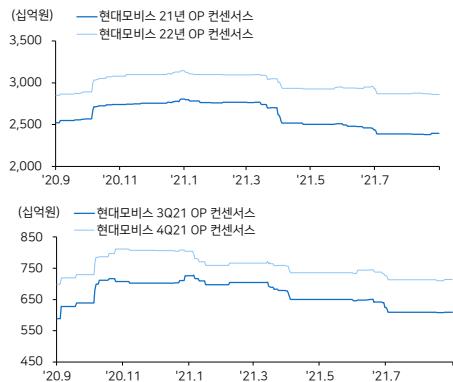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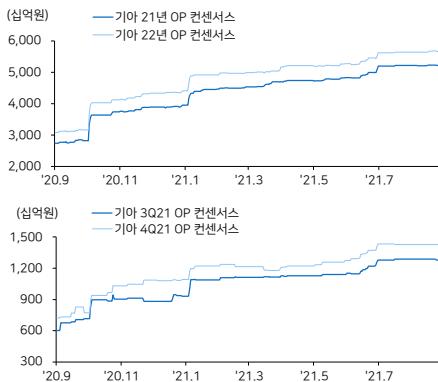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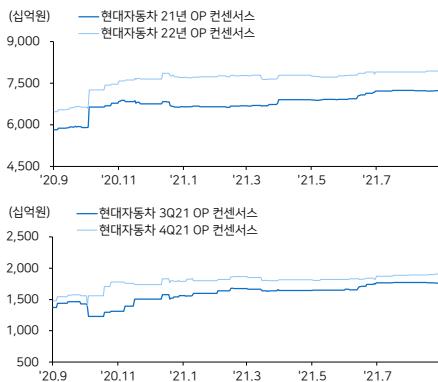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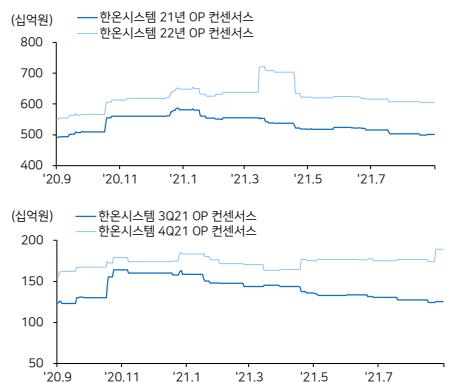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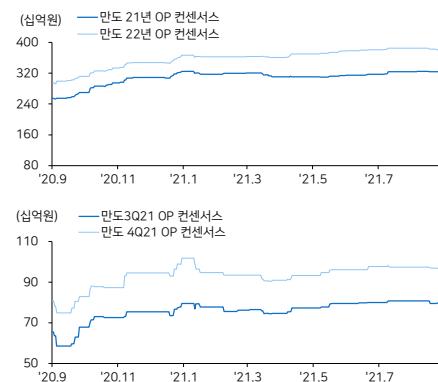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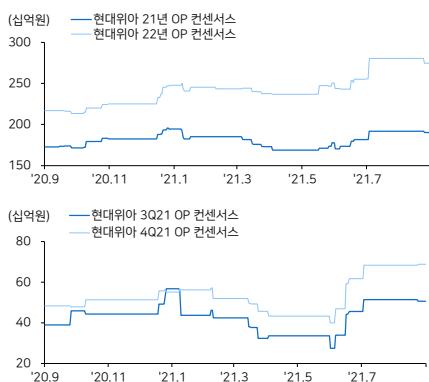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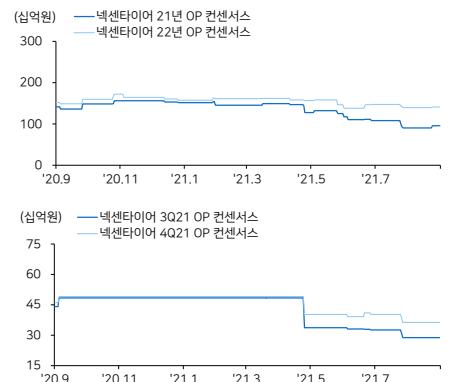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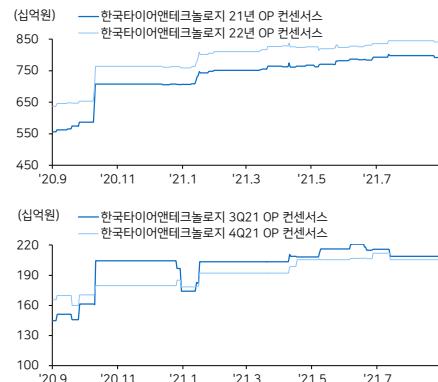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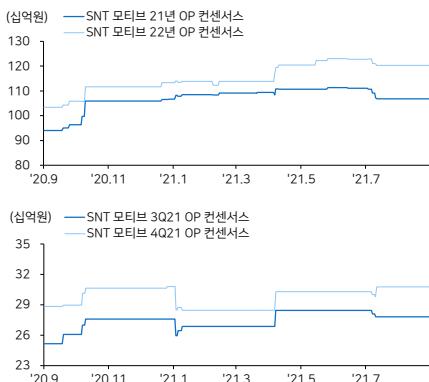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물가 9% 오를 때 쏘나타값 26% 인상… 내수 장악한 현대차, 경쟁사보다 더 올려 (조선비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지난 10년 동안 다른 완성차업체보다 제품 가격을 큰 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남. 가격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수입 브랜드가 현대차와 직접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

<https://bit.ly/3kLR02e>

후반도체 수급불안 언제까지…현대차·기아 美공장도 휴업 (뉴시스)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생산차질이 지속되는 중.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반도체 부족으로 이달 들어 담수간 가동을 중단했고, 기아 조지아 공장도 지난 7일 하루 생산차질을 겪음.

<https://bit.ly/2YacmhD>

95조짜리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 상장한다…벌써 국내 관현주만 10개 넘어 (조선비즈)

아마존이 7억 달러를 투자한 전기차 기업 '리비안'이 11월 미국 증시에 상장할 예정.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리비안은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들이 다수 존재해 관심이 주목됨.

<https://bit.ly/2X8fkq6>

中 지리차, 스마트폰 시장 진출…車 사업과 시너지 '기대' (THE GURU)

지리홀딩스는 28일 애리 러 회장이 모바일 기기 회사 후베이 싱기 시장에 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고 발표함.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여 자동차 사업과 결합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

<https://bit.ly/3uXtDbj>

현대차, 메타버스로 MZ세대 공략 '속도' (세계일보)

현대차가 이른바 'MZ'세대 공략에 공을 들이는 중.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개성을 중요시하는 이들의 취향을 저격해 젊은 고객층으로 확보하려는 전략. 최근 제페토에 콘텐츠 리뉴얼로 쏘나타 N '더 블랙'을 선보임.

<https://bit.ly/3kKp7Hh>

SK이노베이션-포드, 美 최대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13조원 투자 (AP신문)

SK이노베이션과 포드자동차는 미국 헌지시간으로 28일 양사 합작법인 블루오벌SK의 배터리 생산 부지 두 곳을 발표함.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조립공장 건설을 위해 총 114억 달러(약 13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https://bit.ly/3APMj3r>

Lucid to start deliveries of electric cars with range exceeding Tesla's in October (Reuters)

전기차 기업 루시드가 화요일 애리조나 공장에서 '루시드 에어' 모델의 생산을 시작함. 10월 말 인도가 시작될 계획이며, 현재 13,000건 이상 사전예약을 받았다고 밝힘. 루시드 에어는 112kwh 배터리백에 516마일의 EAP 수행거리를 기록.

<https://reut.rs/3m4mXIP>

Tesla's Elon Musk shares FSD Beta rollout strategy, V10.2 release date (Teslarati)

머스크는 FSD 베타 V10.2가 이번주 금요일부터 출시될 것이라고 밝힘. V10.2가 출시된 후 Tesla는 FSD 베타 버튼에 대한 액세스를 하루에 최대 1000명의 소유자로 늘릴 계획이며 안전 점수에 따라 우선 순위가 지정됨.

<https://bit.ly/3CTC7kv>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